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1>

‘불국토’ 창립... 계층 복지 불사

부산 포교·복지 새 지평 연 혜총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 1943년 경남 통주에서 태어나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보경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1964년 지호 스님에게서 건당(建幢). 당대 율사 자운 스님을 40여년 모셨다. 2011년 11월 까지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감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공양하는 마음> 등이 있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웃음꽃이 핀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스님의 걸걸한 입담과 위트, 재미있게 풀어주는 부처님 이야기는 귀를 즐겁게 세우고 들을 수 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천진하게 웃는 스님의 모습은 만나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실제 포교원장 재직 당시에도 스님의 집무실 문턱은 매우 낮았다. 누가 찾아와도 물리는 법이 없었다. 도리어 손수 집무실 문턱과 문을 열어 박카스 한 병을 손에 쥐어주고 들길 청했다. 그래서 지자(知者)들 사이에서는 스님을 ‘박카스 원장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늦가을, 추석제인 부산 감로사를 찾았을 때에도 스님은 신도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겸연쩍었지만 그 이야기 꽃밭에 함께 앉았다. 묻지 않아도 스님의 이야기는 법문이 돼 흘렀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가장 먼저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출가의 인연이 궁금해서다. 스님은 세상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루는 탁발 오신 스님이 나를 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서른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 길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통도사로 찾아가 출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바로 시켜주지 않더라구요.”

출가를 결심하고 통도사에서 만난 스님이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이었다. 자운 스님은 어린 혜총에게 3천배를 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 혜총은 의아했다.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운 스님은 어린 혜총에게 “오늘의 공덕이 무궁한 복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한 마디에 어린 혜총은 9시간 동안 밤새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했다.

“스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어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모든 것은 ‘업’ 때문이죠. 업이 있어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을 없애는 것이만이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출가부터 이어지는 3000배 원력

혜총 스님이 출가하며 세운 3000배의 원력은 지금도 추석제인 감로사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3000배 참회기도법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감로사를 ‘삼천불 삼천배 기도 도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감로사 3000배 참회기도법회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처님 출가일에 앞서 자운 스님을 비롯한 성철, 향곡, 석암, 월하, 지관, 일타, 월산, 청담, 운허, 영암, 벽암, 범전 스님 등 당대 최고 고승들이 이곳 감로사에 모여 국난극복 위해 참회법회를 봉행했죠.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자운 스님께 허락을 받고 80년대부터 제 출가 원력인 ‘3000배 참회’를 합쳐 참회 기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혜총 스님은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을 40

년을 시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고될 만도 하지만 혜총 스님은 단박에 고개를 저으며 ‘인생난득(人生難得), 불법난득(佛法難得)’이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인간의 목숨으로 세상에 나오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정법난득(正法難得)’, 정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자운 스님을 비롯해 성철, 향곡, 구하 스님 등 최고 선지식들을 두루 만나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모든 사미를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은 어린 저와 씨름 시합을 벌일 정도로 친근히 대해 주셨습니다. 시봉이라기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지요.”

자운 스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자란 만큼 스님을 시봉하는 데 어려움보다는 환희심이 컸다는 말이다. 자운 스님의 입중 순간을 지킨 것도 혜총 스님이었

직한 사단법인 불국토는 부산지역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복지사를 새로 쓴 단체였다. 1994년 부산 지역 불교 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산 진구청으로부터 개금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권자로 선정됐고, 1995년에는 더 많은 포교,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았다.

현재 불국토는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법인으로 세분화됐으며, 혜총 스님이 대표 이사로서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에는 옹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수영구노인복지관, 옹호어린이집 등 총16개의 시설이 있다.

혜총 스님이 이 같은 복지와 포교에 원력을 세운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일화가 있다.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당시를 회화했다.

“1980년대 초 뇌성마비복지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열심히 뇌성마비 복지시설들을 위문하려다녔습니다. 설날 즈음 뇌성마비 장애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먹던 것을 전부 게워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좋은 일을 한다고 우쭐대며 돌아다니지만 결국 너는 위선자다. 네가 장가를 가 저런 아이를 낳았다면 토했겠는가, 너는 아비도 못되고 당사자인 장애우도 될 수 없구나’라며 자책했습니다. 정말 중생들을 위한 포교와 복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1990년대 부산 지역 포교와 복지를 이끌어오며 부침은 한 번도 없었을까? 스님은 어려웠지만 스스로 가진 신심과 원력, 행원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상 일이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따르는 신심과 제가 세운 원력, 꾸준한 행원을 되새기며 살았습니까.”

스님이 말하는 신심과 원력, 행원은 혼탁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속인들이 귀담아 들을만하다. 올바른 선지식과 도반을 만나 신심을 갖고, 부처님과 보살처럼 장대한 원력을 가진 후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심과 원력으로 포교원장 활동

이 같은 ‘신심·원력·행원’은 포교원장 재직 당시에서도 그대로 발현했다. 2006년 11월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부임한 혜총 스님은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 수립해 기존 어린이청소년포교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어린이 전법도량 선정을 추진하는 등 현재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D·신도 품계 도입 D·종단 사상 첫 전법단 구성 D·지역별 포교결집대회 등의 각종 포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체육인 복지 육성 등 계층 고교 기반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체육인 불자들의 신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매개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던 스님은 2007년 8월 창립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발기인총회를 거쳐 10월 체육인불자회를 탄생시켰다. 2008년에는 선수촌에 법당도 개원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포교 환경 발전의 토대를 만든 스님은 2011년 11월

뇌성마비자 보며 복지·포교 발심

옹호종합사회 복지관·어린이집

양정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

16개 시설... 직원 1000여 명

“출가 장려·포교회관 건립, 다시 한번 뛰고 싶습니다”

다. 그래서인지 자운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혜총 스님은 재발심하게 됐다고 회화했다.

“평소에 자운 스님께 저에게 해회를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도 좋는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님께서서는 입중 전 ‘금생도 좋지만 내생도 좋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혜총 스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답하고 견문을 넓히며 수행에 매진했다. ‘아난다가 부처님 입멸 후 개족산 비랑에서 정진하듯’ 공부했다고 스님은 당시를 회상했다. 이 같은 깨달음과 재발심이 ‘포교’라는 원력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쓰린 과거가 복지·포교 원력으로

사실 혜총 스님에게 붙는 수식어는 ‘포교’와 ‘복지’다. 1986년 사단법인 ‘동련’이 출범하면서 혜총 스님의 본격적인 포교 발걸음이 시작했다. 이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맡은 혜총 스님은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까지 이끌어 부산 지역의 새로운 포교지평을 열었다.

2004년 북한의 용전참사 사건이 발생하자 부산 참여불교운동본부를 통해 ‘통일신발’ 보내기에도 적극 나서며 북동포 돕기에도 남다른 노력을 쏟아 부었다. 부산 동명대학교 불교대학에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혜총 스님이 정관 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시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 양곤 | 바간 | 혜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혜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적멸보궁 金剛山 乾鳳寺 **“DMZ 평화 템플스테이”**

남한에서 유일한 금강산,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아름다운 산세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년고찰입니다. 이러한 건봉사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을 담은 **“DMZ 평화 템플스테이”**를 아래 일정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템플스테이 일정

1. 제 1기 : 2012년 12월 14일 ~ 16일 (2박3일)
제 2기 : 2012년 12월 28일 ~ 30일 (2박3일)
제 3기 : 2013년 1월 11일 ~ 13일 (2박3일)
제 4기 : 2013년 1월 25일 ~ 27일 (2박3일)
2. 템플스테이 동참금 : 1인 7만원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고, 종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3. 온라인구좌 : 농협 301-0026-6674-61 (예금주: 건봉사)
4.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화(편한신발) 여벌옷 (방한복).

민통선안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전화 033-682-8100 / 팩스 682-5994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수행과 포교는 새의 양 날개”

포교원장배 추

충북 보은군 종합운동장



포교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당시 개최한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혜승 스님이 사축하고 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해 진행한 청소년자원봉사학교의 길거리 캠페인 모습. 이 복지센터는 혜승 스님이 대표 이사로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단체다.



불기 2504년 4월 16일 통도사 결제 기념사진. 사진 오른쪽 제일 아래 등자승이 혜승 스님이다.

여법하게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같이 포교와 복지에 평생에 원력 받친 스님에게 이 두 가지 원력은 곧 수행과 같았다. 그래서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 항상 강조한다. “불교를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수행과 포교, 두 가지 뿐입니다. 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포교원장 재직 당시 슬로건을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고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포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에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포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혜승 스님은 지금도 한국불교 포교 발전 방안을 구상 중이다. 스님이 계획하는 발전 계획은 총 세 가지다. 먼저 포교를 위해서는 눈 밝은 선지식을 배출하기 위한 출가 장려 운동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출가를 시켜야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가자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여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준 높은 스님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가불자들에게 아이를 셋 이상 낳아 한 명을 출가 시키는 방안을 권합니다. 종단도 승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각종 승가학교를 만들어 동진 출가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불교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교와 전국 각지 포교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가자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가 대표이사로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만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생활을 불교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지역사회와 경제에 회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에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 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조성해 지역불자들이 먹고 즐기고 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수행과 포교는 세상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운 3대 지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총무원장도 해보고 싶습니다. 현생에서 안된다면 내생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 포교할 것입니다.”

감로사를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가는 해를 맞는 불자들에게 덕담 한 마디를 청했다. 스님은 ‘무상함을 알라’고 즉답했다. “가는 해는 늘 가고, 오는 해는 늘 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이 표피만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이 해가 갈수록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이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상함을 알라,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벽같이 깨어있으라’고 설했습니다. 이를 알면 두 번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알고 깨어있으십시오.”

감로사를 나오니 저녁해가 남해 바다로 넘어가고 있다. 총총히 밝혀진 가로등 불빛은 애처롭다. 다시 한번 혜승 스님의 법문이 곱씹어졌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부산·글= 신종일 기자 motb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매뉴얼

소포를 부쳐야 했다. 물건을 챙겨 재검증으로 우체국을 향했다. 가는 길목 오른쪽에 세검정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은 보는 순간 붉은 소화가 정연히 놓여 있기에 안도감이 들어 마음이 활기차 있었다. 몇 발짝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탕춘대가 있던 곳이 나온다.

세검정이란 명칭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다. <궁궐지>에 의하면 이조반정 때 이귀·김류 등의 반정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의 폐위를 의논하고 뜻을 같이 하여 칼을 갈아 씻었던 자리라고 해서 세검정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런가 하면 <동국여지비고>에는 세검정은 열조(列朝)의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세조(洗草), 즉 사초를 후환이 없도록 물에 씻어 흐려버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장마가 지면 도성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 구경을 하였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경지략>에는 정자 앞의 판석은 흐르는 물이 갈고 닦아서 인공으로 곱게 다듬은 것 같이 되었으므로, 여염집 아이들이 붓글씨를 연습하여 돌 위는 항상 먹물이 묻어 있고, 넘쳐흐르는 세사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령폭포가 있다고 하였다.

정자가 있는 지역은 한성의 북쪽으로 지리산 목구멍에 해당되어 영조 때에는 총융청을 이곳으로 옮겨 엄하게 하였으며, 북한산성의 수비까지 담당하게 하던 곳이다. 총융청을 이곳으로 옮겨면서 군사들이 쉬는 자리로 정자를 지은 것이 세검정이기도 하다. 김상재가 지은 <창암집>에는 육각정자로서 영조 23년(1747)에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검정의 설이 분분하여 몇 자 적어 보았다.

우체국에 이르니 봉투며 상자가 있는 선반위에 정돈된 매뉴얼이 보였다. 물건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상자를 골라 물건을 넣고 포장하고 나니 안심맞춤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란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속 들게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뉴얼이란 사용자·설명서·안내서를 이르는 말이다. 경영의 의지결정 방법을 나타낸 규정서부터 안내서까지 통 털어 이르는 말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매뉴얼도 긴요하다. 그 안내서대로 따라하면 별반 탈이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나 집단도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기상천외의 일이 생기기도 한다. 혹자는 어찌 세상을 공식대로만 사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생각해 보자. 공식을 이탈하게 되면 탈법이 되고 만다. 공식은 불편한 듯 보이지만 익히고 나면 훨씬 편리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 무질서가 자유분방하고 편리한 듯 하기도 하다. 그러나 무질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 순조로움이란 어디에도 없다.

관공서에 놓여 있는 많은 서식 용지를 본다. 세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간혹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개선을 거듭하여 이상적인 답안을 낸 양식이다. 교통신호도 그렇다. 몇 초를 나누

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호관계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신호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확보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면 저런 행위도 용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뿐이라. 보행자의 여유도 앗아가며 손살 같이 질주하는 운전자의 모습에서 이내 질서는 실종되고 만다. 저 주저리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주저리는 나무가 겨울을 나는데 눈·비를 가리며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라고 나무줄기에 벗겨낸 것을 모아 토시 같이 썩워 놓은 것을 말한다. 벗겨낸 마지막까지도 헌신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던 나무 사람들은 그만 못한 경우도 더러는 눈에 뜨인다.

능률과 효율이란 면에서 매뉴얼은 필요하다. 습관이란 어느 규칙에 의해 몸에 익은 행위가 다. 그 습관대로만 행동하고 산다면 창조된 삶이라 할 수 없다. 창조는 매뉴얼과는 별반 상관 없는 일이다. 어느 과학자나 작가가 매뉴얼에 따라 연구하고 집필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성종이와 다를 것이 없다.

성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세상의 매뉴얼이란 통용될리 없다. 기성세대의 안내서도 통용될리 만무하다. 통용의 길은 외통수다. 단 하나 양심의 문이 있다. 양심은 가르쳐서

능률과 효율면에서 필요한 매뉴얼 과학자·수행자에게 무관한 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은 익혀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양심은 천성이기 때문이다. 양심은 변형될 수 없는 승고한 덕성이다. 붉은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꽃은 그들이 지닌 천부의 속성이듯이 뒤바뀔 수 없는 문제다. 양심의 하이브리드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세상사는 원리가 간단하지 않은가. 나의 길 열심히 가면 되지 왜 결눈질 해가며 시류에 편승하여 휩쓸려다니며 사는가. 휩쓸려다니는 평정심을 잃는 행위이다.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야기된 일이다. 이 세상에 제일 경계해야 하는 일은 양심을 상실하는 일이다. 양심이 소멸된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양심이 소멸된 세상에는 태양도 빛이 바래고 달도 은색을 잃고 만다. 바람도 그 속성을 잃고 말 것이다. 물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해와 달이 잠들고, 바람이 소멸되고, 물이 고갈된 세상은 세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혼돈만이 존재하겠지.

세존의 음성이 귓전에 맴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그러려면 우선 침묵하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법을 논하라. 그것만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값진 일이다.”

무성했던 접초가 이제 방식으로 바뀌어 행인을 쉬여가라 손짓한다. 자연은 매뉴얼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대강백 무비 스님과 대심 거사 조현춘 교수가 누구나 즐겁게 독송할 수 있도록 운율을 맞추어 번역한 가사체 경전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무비 스님·조현춘 공역/사륙배판/96쪽/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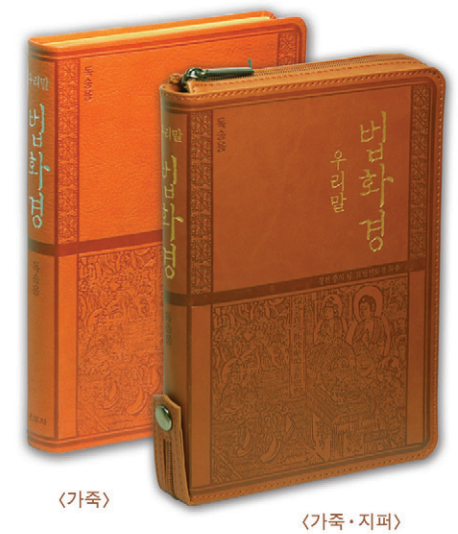


무비 스님·조현춘 공역/사륙배판/88쪽/5,000원



무비 스님·조현춘 공역/사륙배판/100쪽/5,000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독송!



(가축)

(가축·지파)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해조역/국판양장/금장 630쪽/가축: 20,000원/
가축·지파: 25,000원

